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내일 0시부터 사순절 연속기도를 시작합니다.
연속기도에 참여하실 때, 기도표에 미리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첫 주는 멋쟁이 학생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부활절 준비를 위한 일정 안내 (4월)>
2일(목) 목요세족예배 오후 8시 / 4일(토) 부활절 청소 오후 2시
5일(일) 부활절, 찬양잔치 오후 7시
- 26년도 종합교육과정(배움과정)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예들원(예담교회) 정지은 목공예 작가 '사순절 십자가 전시회'
일시 : 3월 24일(화) - 4월 4일(토) 오전 10:00 - 오후 7:00
장소: 문화공간 JADE409(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지하 2층)
-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태규 · 전향옥 집사 가정 (감사)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2 호

2026년 3월 2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춘분을 지나면서

올해 춘분이 지난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농경사회가 중심이 된 동양에서는 24절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선조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시절에 따른 변화와 흐름을 깊이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사계절을 24절기로 구분하고 절기마다의 특징을 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을 읽고 자연의 흐름에 적응하며 무엇보다 대부분 땅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농심(農心)을 배려한 공부였을 터입니다.

절기를 따라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 선조들의 일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정서 또한 많이 달랐겠지요.

한반도의 계절은 유난히도 변화무쌍한 터라, 사시사철 제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에 고생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선조들에게는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제일 되는 미덕이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철이 없고 사람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계절을 '철'이라고 부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계절의 흐름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부를 때, 잘 알지 못한다는 부지(不知)를 합쳐서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잘 아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거둘 것은 거두어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전보다는 훨씬 복잡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읽어야 할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읽으면서 삶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근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이념과 사상의 흐름을 좇아 더 나은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지배적이다 보니, 자본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이고 본류에 가까운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영역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봄철입니다.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는 계절이지요.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땅과 나무를 살피다보면 생명이 움트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땅의 모든 곳에서 활기가 넘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철을 따라서 삶의 흐름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내쫓기듯 살아가던 리듬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마음에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새로 힘을 불어 넣고, 특히 신앙의 리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신앙생활에도 부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흐름을 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바뀐 세태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잘 알아서 '철 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생명이 되살아나듯이 신앙에도 새 힘이 회복되는 은혜가, 사순절기를 지내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
<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12, 28 / 435

기도 :

성경 : 열왕기상 4장

제목 :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1-19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해석: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시 담당자들 중에 제사장을 먼저 소개한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것이다.

적용: 생활에서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자.

20-34 솔로몬 통치의 평가

해석: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지키게 되면 평안의 복을 받는다.

적용: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열왕기서의 쓰여진 상황과 목적

해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적용: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자.

결정, 그리고 부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농부로서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3년 전 쯤, 조경 설계 회사를 다니며 바쁠 때는 주 120시간씩 기계처럼 일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면 내 일을 직접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 큰 꿈을 품은 채 흔히 말하는 '사업'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던 찰나 스마트팜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주도적인 결정이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말리기 바빴고, "왜 스스로 힘든 길을 가려 하느냐"라는 우려를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 다르셨다. 퇴사를 결심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이제는 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아빠는 너를 항상 믿고 응원할게. 도전해 봐"였다.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다. 아들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 이랄까. 그러나 퇴사 후 맞이한 막막한 시간 속에서 곧이어 찾아온 부담감은 그날부터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꿈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 공부하고 부딪혔지만, 결국 행정적인 장벽에 부딪혀 스마트팜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다.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다시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사과를 재배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또 다른 부담이 찾아왔다.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결정은 늘 부담감을 동반하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며 한걸음 물러서서 바라본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 믿는다.

현재 나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결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는다. 이제는 그 무거운 부담감조차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려 한다.

젊은이사랑방 김성찬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다니엘서 12 : 2b-3
21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 인도자
다함께
89, 21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빌립보서 2 : 1-16 설교자
151 따뜻한사랑방
“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태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55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전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태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신앙의 척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 됨'을 이루는 공동체적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개인의 만족에 머물지 않고, 성령 안에서 얼마나 깊은 연합을 이루느냐로 증명됩니다. 인간적인 친교는 파당을 낳지만,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는 가장 높은 자리를 비우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겸손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경쟁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의 성과보다 연합 그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리. 성령 안에서 교회와 연합할수록,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가치관과는 자연스러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며,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집니다. 이전의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아침 산책을 하며 새벽에 언 살얼음을 나뭇가지로 건져봅니다. 하루 하루 마당에 올라오는 새싹들이랑 수선화랑 산수유랑 목련 꽃망울을 살펴봅니다. 금요일 낮에 드디어 수선화가 핀 걸 보았습니다.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가시가 남은 길을 조심조심 걸어봅니다. 생강나무 꽃망울이랑 일찍 핀 제비꽃 한 송이랑 노란 꽃다지를 만났습니다. 바깥놀이 시간에는 트램블린에서 실컷 뛰어놓습니다.

월리를 찾아라 전시를 보았습니다. 월리를 찾으며 그림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월리처럼 꾸미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곤충식물원에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익지 않은 바나나는 무슨 색깔까 이야기해 봅니다. 처음부터 노란색이었을까 아니면 주황색 어찌면 초록색일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초록색 바나나와 어른 키보다도 더 큰 잎사귀를 보았습니다. 잎사귀를 이불로 덮고 자도 되겠다 이야기 합니다. 파리지옥을 보고는 만지면 손가락도 물까 궁금해 합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거리를 바람에 날아갈까 우산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걸어봅니다. 장화 신은 발로 고인 빗물을 광광 밟아봅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바람이 아직 쌀쌀하지만 햇살이 따뜻하여 놀기 좋은 날이었고 비가 온 날은 동그라미와 공주방에서 소근소근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여는 모임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하는 법, 서로 관심 있게 보내기, 예배는 단정하게 드리기,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실천하기를 위해 박수 3번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월요일 예배시간 시편 119편 33절~35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정다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수요일 LTSS 시간엔 '마음 청소'라는 제목으로 활동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에나시 아키라 작가의 마음 청소라는 책을 통해 88가지로 9장으로 나누어 제목별로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정리(청소) 하고 자신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생각하고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학교 1학기 부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 도서부: 서예준, 최하늘, 전유나, 안서운
- 체육부: 최민용, 한이든
- 미화부: 신예나, 이채원, 이지음, 황보아름

어린이 자전거 분리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빨강 리본을 묶었고 쓸 수 없는 것은 옆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춘삼월의 봄향기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춘분을 지나는 날씨 속에서 학교 생활이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열린수업 시간에는 3정생활 테스트 및 학년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이념 및 자가 피드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삼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새기는,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주에 있을 새천년 건강체조 대회를 위해 전체적인 컨셉을 잡거나 팀워크를 맞춰보는 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환절기 속에서 감기 증세를 얻은 멋쟁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서로가 가깝게 지내는 공동체 생활 특성상 전염을 막기는 어렵지만, 많은 멋쟁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려 노력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사순절 연속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삼아서, 큰 은혜를 만끽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열여섯 손가락

생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멧쟁이학교 전임교사로서의 첫 1년을 보냈습니다. 올해 초부터 사랑방 공동체에서 보낸 202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졌습니다. 아직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넓은 의미보다는 교사라는 역할이 익숙한 저에게 한 해를 정리하며 담임을 맡았던 3학년 멧쟁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일 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매일 아침 찬양을 부르며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한 8명의 멧쟁이들. 3학년을 처음 맡았을 때 마치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진 8개의 원석들을 제 두 손 가득 들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아 들떠 있었고 동시에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한없이 감사하면서도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마음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봄 학기를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은 학년과 귀가인사를 하며 '너희들 덕분에 행복한 일 년을 보냈다'라고 개인적으로 잘 정리했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개강여행에서 마주한 저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서로의 거울이 되어 주는 8명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한 순간 '아 사랑이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지낸 행복한 시간 저 깊은 곳에 차마 인정하기조차 두려웠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6년도 1학기 저의 품으로 새로운 8명의 멧쟁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며 '내 안에 사랑이 나뉘는 걸까? 혹은 2배가 될까?' 궁금할 때 어릴 적에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혹시나 나보다 언니를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어린마음에 엄마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무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심드렁하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셨습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본 경험이 없는 저에게 나눠지지도 또 한사람에게만 배가 되지도 않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경험합니다.

그분의 가능할 수 없는 사랑의 빗줄기가 나를, 우리 모두를 오늘도 충분히 적십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조민아 교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370장

성 경 : 잠언 8장 22-36절

말 씬 : 지혜는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든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혼란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중동 전쟁으로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민들레 공동체 김인수 대표를 위해>
최근 심혈관 관련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 건강이 잘 회복이 되도록,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민들레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사순절 기간 공동체 식구들의 신앙 회복과 갱신을 위해
2) 안전하고 순조로운 교육관 증축 공사를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봄 햇살이 가득한 공동체 마당에는 봄꽃들이 봉우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선화도 피고 곧 산수유도 만개할 것입니다. 새 봄 맞이도 맞이하지만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배수로도 새로 정비하고 주변 쓰레기도 치우면서 정리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려 합니다.

파종을 위해 밭에 비료를 뿌려 비옥한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릇 파릇 새순이 가득한 밭과 마당이 기대가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